

#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의 양가적 시선과 성격 \*

고 헤 림 \*\*

## < 목 차 >

1. 화인화문학과 디아스포라
2. 지식인 디아스포라의 양가적 시선과 성격
3. 비지식인의 지식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양가적 시선과 성격
4. 디아스포라의 신분적 층위와 갈등
5. 결론

## 1. 화인화문학과 디아스포라

전지구화의 이면에는 현 시대를 담고 있는 큰 틀인 포스트식민주의적인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을 통해 해석되는 담론의 장이 펼쳐져 있다. 유목민을 뜻하는 노마드, 유대인의 강제이주를 뜻하던 디아스포라와 같은 용어들은 점차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국가의 국민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현상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인문 사회과학의 여러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 그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용어 차원에서의 디아스포라와 포스트식민시대 및 전지구화 속의 디아스포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7145).

\*\*釜山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現代中國文化研究室 研究員

라는 개념과 역할에서 볼 때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라고 판단한다. 즉 현재적 의미와 기능적인 차원으로 접근해보자면 기존에 일상적으로 이해되어 온 디아스포라의 개념은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이주민과 이민자 및 배우만이 말하는 소위 ‘지구화의 쓰레기들’<sup>1)</sup>의 층위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존재 및 정체성에 관한 연구는 포스트식민시대 및 전지구화라는 전제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즉 디아스포라는 기능적인 의미와 세계문화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문학론을 논함에 있어서 상당히 유효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아스포라는 전지구화의 철학적 분야의 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고찰을 위해서 본고에서는 표본이 되는 여러 집단들 가운데서도 특히 화인 디아스포라 집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화인화문문학에서 나타나는 화인 디아스포라들이 그들 자신을 혹은 다른 화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양가적인 성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허다트는 호미 바바를 통해 양가적이라는 개념을 제기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대상을 지칭하는 기표가 실제로 그 지시 대상을 완전히 다 포괄할 수 없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양가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의미요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2)</sup> 여기서 말하는 양가성은 ‘이주를 통해 거주국에서 정주하며 고향에서보다 더 나은 삶과 기회를 부여 받은 화인 지식인 디아스포라’라는 기표에 덧씌워진 우울증과 자기기만적 행

1) 배우만은 잉여적 존재의 구체적 사례들을 열거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하층계급과 난민이 대표적이다. 하층계급과 난민은 자본의 전 지구화가 낳은 대표적인 잉여적 존재들이다. (135) 내부의 적으로 호명되고 있는 것이 하층계급이라면, 내부로 흘러들어온 ‘외부의 적’으로 호명되는 존재들이 있다. 이주민과 난민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외부로부터 흘러들어와 서구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들이며 서구사회 속으로 완전히 편입될 수 없는 잉여일 따름이다. 즉 “난민, 추방자, 망명자, 이주민, 불법체류자, 그들 모두는 지구화의 쓰레기들’인 것이다. 이들은 서구사회에 진입하지도 못한 채 사회의 변경지역에 영원히 머물면서 자신이 도착한 곳이나 일시적인 체류지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인간쓰레기들로 취급된다. 김용규, 《혼종문화론》, (서울: 소명출판, 2013), pp. 135-137.

2) 데이비드 허다트 지음, 조만성 옮김,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서울: 엘피, 2011), pp. 8-9 참고.

위들로 표현될 수도 있는 화려함 이면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점, 말하자면 ‘스스로를 부정할 수 있는 상반된 요소들’을 가지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북미 화인화문문학 작가들 중에서 미국 지역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로 白先勇, 於梨華, 張系國, 聶華苓, Amy Tan(譚恩美), Maxine Hong KINGSTON(湯亭亭) 등이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캐나다에는 梁錫華, 盧因, 東方白, 李頻書, 梁麗芳, 亞堅, 陳浩泉, 劉慧琴, 崔維新 등이 학계를 기반으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sup>3)</sup> 기실 북미 지역의 모든 화인 디아스포라들의 문학을 함께 다룬다는 것은 작품의 편수나 작가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무리가 뒤따른다. 그러므로 문학적 가치와 시대적 정신, 일정 정도의 시간적 흐름과 작가들의 문학적 역량을 기반으로 대표성을 갖추었다고 평가되는 점<sup>4)</sup>과 더불어 한국에 작품들이 번역되어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추후 여타 작가들에 대한 분석의 틀을 마련하고 연속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간주한다.

북미 지역에서 화인들에 의한 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적당한 수준을 갖춘 작품들의 본격적인 등장은 이민 1세대 타이완 출신의 작가들을 중심으로 창작되면서였다. 그들의 작품은 중국어로 창작되어 타이완과 중국대륙으로 유입되었고 순수하게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각도로 조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영역되어 읽히기도 하였다. 여기서 논의되는 작가들은 이민 2세대 작가들을 제외하면 공통적으로 중국대륙에서 태어나고 타이완으로 이주하여 교육을 받다가 다시 미국으로 이주하여 고등교육을 받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특별한 위치에서 바라보는 경험과 소통능력으로

3) 王景山的《臺港澳暨海外華文作家辭典》에 소개된 북미 지역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은 미국 74명, 캐나다 11명으로 미국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다. 문학단체의 수나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고려할 때도 미국이 더욱 방대한 텍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미국 지역으로 한정하여 화인화문문학 속 디아스포라의 양가적 시선과 성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4) 고희림,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문학적 특징》,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13), 71쪽 참고.

부터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으로서의 특수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들의 소설에서는 자신들만이 표현해 낼 수 있는 상상력과 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뿌리와 정체성에 대한 갈등, 그리고 이산으로부터 비롯되는 두려움과 고통에 대한 통찰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그대로 녹아 있다.

화인화문문학 소설 중에서도 1960-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작품을 발표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문학적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거주국인 북미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주요 대상<sup>5)</sup>이다. 여기서는 이들의 소설에서 형상화된 작중인물들을 크게 지식인이라는 신분적 정체성을 가진 인물들, 곧 작가에 의해 비교적 효과적으로 묘사된 지식인<sup>6)</sup>과 그 외의 직업군과 여타 인물들을 편의상 비지식인 그룹으로 묶어 분류한다. 작중인물들이 작가의 의식이 투영된 지식인으로서 이주자를 바라보는 방식 혹은 그들이 스스로 느끼는 이율배반적 자의식, 그리고 비지식인으로 나뉜 작가의 주변 인물이나 혹은 허구로 창작된 인물들이 지식인 신분인 이주자를 대하는 방식과 그들 스스로를 정의내릴 수 있는 정체성으로 구분지어 그 안에 내재하는 양가적인 시선과 성격을 진단하고자 하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 화인화문문학에 대한 정의와 범주<sup>7)</sup>, 전체적인 역사와 시기 구분<sup>8)</sup>, 화인 디아스포라 시각에

5) “화인 인구가 세계 각지에 집단을 이루어 거주하고 있지만 비교적 현저한 궤적을 남긴 곳이 동남아와 북미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혜림,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문학적 특징》,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13), 12 쪽 참고.

6) 강수택의 《다시 지식인을 묻는다》의 논의처럼 한국의 지식인론은 사르트르의 지식인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대중사회론 등에서는 만하임의 영향을, 그리고 지식인과 대중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조한 그람시의 영향 또한 받았다. 서은주, <지식인 담론의 지형과 ‘비판적’ 지성의 가치>, 《민족문학사연구》 54권, (서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504-505쪽 참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인이란 백과사전적 의미로의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생업활동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통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르트르의 ‘보편적 지식인론’ 혹은 사회학적 의미의 ‘인텔리겐차’까지는 광범위하게 아우르게 된다. 이를 통해 나아가 화인화문문학에서의 대비되는 두 그룹의 화인들의 서로를 바라보는 양가적 시선을 좀 더 대비되는 방식으로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7) 김혜준, <화인화문문학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Vol.50,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1, 77-116쪽)

8) 고혜림,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역사와 시기구분>, 《중국학논총》 Vol.38, (서울: 고려

입각해 高行健과 같은 작가를 조망하는 글<sup>9)</sup>뿐만 아니라 문화횡단적 행위자들로서 화인을 바라보는 글<sup>10)</sup>이 기존의 학계에 논의된 내용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텍스트를 보다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텍스트 읽기로부터 비롯되는 특징적인 점에 대해 서술한 글은 기존에 많지 않았다.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문학적 특징》(2013)<sup>11)</sup>의 경우 소설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면서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의 특징을 밝혀냈으나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지식인이라는 키워드 쪽과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나아가 본고는 특정 시대와 특정 지역의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의 거주국에서의 갈등과 적응의 과정을 소설을 통해 읽어가면서 단일민족과 문화를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성찰을 함께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미 화인 디아스포라 작가들은 대부분이 지식인으로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작중인물들 중에서도 주인공으로 중심 역할을 하는 인물들은 대체로 작가의 과거 혹은 현재적 경험이 투영된 지식인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는 양가적인 시선과 비지식인의 입장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나아가 일종의 보편적인 디아스포라의 특성을 담아내는 가능성을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분석 대상 텍스트들은 해당 시기, 해당 지역의 화인화문문학 작가의 소설들 중에서도 보다 포괄적으로 디아스포라의 특성이 되는 문제들을 다루는 측면이 강한 것들이다. 텍스트 전체를 아우르면서 특히 본고에서 주목하는 점들이 잘 드러나는 부분의 예를

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2.11, 323-339쪽)

- 9) 이옥연, <중국인 디아스포라와 高行健의 문학>, 《中國語文學誌》 Vol.14, (서울: 중국어문학회, 2003, 383-402쪽), 이보경, <대북 사람들 속의 상해인 디아스포라>, 《중국현대문학》 Vol.32, (서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7, 214-241쪽), 이등연, <叢華芥의 소설 《桑青與桃紅》: 디아스포라 공간의 안팎>, (중국인문학회 2006년 추계정기학술대회 발표원고)
- 10) 김혜련, 李丹의 <갈등과 융합: 인도네시아 화인 디아스포라의 현지적응 연구>(《동북아 문화연구》 제39집, (서울: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4, 41-59쪽)과 같이 문학이 아닌 화인 자체를 다루는 논문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학적, 문화학적 접근이 아니라 문학 텍스트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은 상기 논문들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 11) 고혜림,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문학적 특징》,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13)

중심으로 살펴본다는 것을 본론에 앞서 밝혀둔다.

## 2. 지식인 디아스포라의 양가적 시선과 성격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고에서는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 거주하던 화인들의 문학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현상들이 어떻게 읽혀지는지 현상을 고찰하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보편적인 디아스포라의 특징들과도 연결되는 접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북미 지역의 화인화문문학의 역사와 시기구분에 따라서 1960-70년대에 속하는 제 3기 이민 1세대 화인들의 소설들을 위주로 일정한 경향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소설에서 나타나는 지식인 디아스포라의 인물형상은 그들 스스로 느끼는 양가적인 시선과 지식인이 아닌 집단들 곧, 비지식인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는 시선과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렇듯 소설에서 드러나는 디아스포라의 양가적 시선과 성격은 화인 디아스포라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전세계 디아스포라의 공통적인 부분을 연결하는 특징적인 요소이다.

디아스포라 연구는 문화적 차원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인문, 사회학 및 교육학 등의 분과학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하나의 지역에 국한된 특수한 현상이 아니기에 화인 디아스포라문학의 연구는 다른 종족에 의한 디아스포라문학 연구에서도 일종의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디아스포라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민족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전지구적 단위로 발생하고 있으며 여전히 발전중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소설 속에서 빈번히 등장하고 있는 지식인 디아스포라들의 모습은 소설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 양가적으로 느끼게 되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설에서 화인들의 양가적인 시선은 오리엔탈리즘적 내재화의 영향도 다분히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작품 속에서 화인들 간의 갈등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혹은 문학 작품 외적으로 지역 단위의 화인들에게의 수용과 배제의 형태로 형상화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점을 전제로 하여 작품 외적인 영역으로의 확대에 앞서 문학 텍스트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양가적인 시선과 성격을 지식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먼저 접근하는 것이다.

화인 디아스포라 작가들은 스스로를 중국인으로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미국인으로 교육받고 살아온 경험<sup>12)</sup>으로 인해 디아스포라라는 신분적 특성을 기반으로 서구를 바라볼 수도 있고 서구인의 시각에서 자신의 모국을 평가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중점적으로 작중인물을 중심으로 논의하므로 작가의 신분적 정체성과 지식인으로서 이주자를 대하는 시선과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張系國의 《棋王》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의 한 형상인 程陵이 역시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등장하는 劉 교수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부분이 있다.

동생이 막 말을 하려는 찰나, 程陵이 황급히 말을 이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재미삼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士嘉, 劉 교수는 지고서 줄행랑을 쳐 버렸지.”

“일이 있으셔서. 劉 교수님은 초청 인사인데 굳이 그렇게 꼬집을 필요가 있나. 내가 아주 곤란하네.”

“일부러 난처하게 할 생각은 아니었지. 그가 분명히 신동에게 졌는데, 입으로는 여전히 우쭐대면서 늙수그레한 티를 내니 참을 수가 없었어.”<sup>13)</sup>

12) 북미 지역의 화인화문문학 작가들은 최종적으로 미국에서 고등교육까지 받고 학계에서 지금까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혹은 계속해서 문단과의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지식인들에 속한다. 그들의 자전적 경험이 소설에 그대로 녹아나고 있음은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문학적 특징》(2013)에서 분석된 바, 자신들의 이주의 경험과 거주국에서의 갈등을 소설을 통해 풀어내고 있었다.

13) 弟弟正要說話, 程陵趕忙接下去:「沒甚麼, 我們隨便玩玩. 士嘉, 劉教授抱頭鼠竄了?」「他有事. 劉教授是客人, 你何必故意損他, 搞得我很不好意思.」「我沒有故意給他難堪. 他明明下不過神童, 嘴裡還要逞強, 做老前輩狀, 受不了.」張系國, 《棋王》, (臺北: 洪範, 1978, 57쪽)

주인공인 程陵은 고국인 타이완에서 교수로서 또 서구 유학을 경험한 고등 지식인의 한 사람인 劉 교수에 대해서 줄곧 비판적인 자세로 바라보고 있다. 劉 교수는 작품의 전반부에서 나온 위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쉽게 게임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거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주변의 여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인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의 모습으로부터 程陵은 일종의 우월감과 자조적인 냉소를 읽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程陵의 시선에서 바라본 화인 지식인의 모습인 것이다. 白先勇의 소설 중에서도 특히 <冬夜>에서 나오는 교수들의 대화 장면에서는 이런 점이 역시 발견된다.

“그가 낭독을 마치자 청중들은 모두 술렁거렸고 특히 몇몇 중국 교수와 학생들은 일제히 나에게 눈을 돌리더군. 반박할 줄 알았지만, 나는 한 마디도 남기지 않고서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왔지..”(…중략…) “자네도 생각해보게. 내가 국의 에서 수십 년이나 도망병 노릇을 하였는데 그런 장소에서 무슨 면목으로 ‘5.4운동’의 변호를 하겠나? 그런 이유로 이 몇 년 동안 외국에서 민국사 강의를 원치 않았단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5.4운동’이야기를 꺼낸 것은 대학생들의 데모 소동을 웃음거리로 이야기한 것밖에 안되네. (…중략…) 이렇게 외국에서 수십 년을 외치다 보니, 어떤 때는 우습기도 해. 내 자신이 마치 당 현종의 백발 궁녀가 되어 외국인에게 천보시대의 유산이나 죽어라고 자랑한 것밖에 안되잖아.”<sup>14)</sup>

이처럼 미국에서 현재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吳柱國는 민주혁명에 참여했던 자신의 과거가 지금은 우스개로밖에 전락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시대유감을 표한다. 거주국에서 그쪽의 구미에 맞추어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강의하고자 하는 ‘중화민국사’나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다

14) “他一念完，大家都很激動，尤其是幾個中國教授和學生，目光一起投向我，以為我起來發言。可是我一句話也沒有說，默默的離開了會場——(……)”你想想看，我在國外做了幾十年的逃兵，在那種場合，還有甚麼臉面挺身出來，為‘五四’講話呢？所以這些年在國外，我總不願意講民國史，那次在加大提到五四，還是看見他們學生學潮鬧得熱鬧，引起我的話題來——也不過是逗着他們玩玩，當笑話講罷了。(……)就是這樣，我在外國喊了幾十年，有時也不禁好笑，覺得自己真是像唐玄宗的白髮宮女，拼命在向外國人吹噓天寶遺事了——白先勇，《臺北人》，(北京：作家，2000，157-158쪽)

를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울한 뉘 교수이지만, 그를 바라보는 余 교수는 더 나은 이상향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를 부러워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余 교수 역시 고국을 떠나고자 하지만 그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余 교수는 마침내 뉘 교수에게 자신의 전공인 영미문학이나 '바이런'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없고 단순히 '기초 중국어'를 강의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와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한다. 고향을 떠나 더욱 선진국인 거주국으로 이주한 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러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지식인 화인 디아스포라인 뉘 교수는 자신의 미국에서의 삶을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가 꿈꿨던 이상향에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를 바라보는 余 교수의 생각과 떠나고자 하는 그의 심리 상태 역시 더 나은 곳을 지향하는 갈망을 여지없이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다. 뉘 교수가 느끼는 상반된 심정과 유사한 부분은 於梨華의 소설에서도 발견된다.

제일 마지막에 집으로 보냈던 그 사진은 그가 미국 대학생 아홉 명과 함께 캠퍼스의 잔디밭에서 찍은 것이었다. 능직 옷옷과 맞춘 갈색 양복바지에다 구부러진 모양의 영국산 갈색 담배 파이프를 든 단정한 모습이 매우 성공한 듯한 모양새였는데 보기에만 그럴 뿐이었다. 막 유학을 떠났을 때의 희망 두 가지는 모두 실현했고 학업도 달성했으며 일도 구했지만 성공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또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일까?<sup>15)</sup>

소설에서는 사진 속의 남자 주인공 天磊의 모습과 그 기억을 되살리는 자신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즉 거주국인 미국에서의 삶에 융화된 듯 보이는 아름답고 정겨워 보이는 사진은 말 그대로 '보기에만 그럴 뿐'이며, 사실상 그의 삶은 성공여부로 판단할 수 없는 참담함과 우울함으로 점철되어 있다. 지식인이 그 스스로 느끼는 자조적인 냉소와 우울감은 이렇듯 작품의 전반에

15) 最後寄回家的那張就是他和九個美國學生做在校園的草地上照的。一件咖啡斜紋上裝，一條西裝褲，一只咖啡色弓背的英國制烟斗，儼然是很有成就的樣子，也僅是樣子而已。剛去國時的兩個希望都實現了，學已成，業已就，但是這個成就應該如何去衡量？而又用甚麼去衡量呢？於梨華，《又見棕櫚又見棕櫚》，(南京：江蘇文藝出版社，2010，5쪽)

내재되어 있다.

張系國의 소설에서 劉 교수의 미국에서의 일화가 중심을 이루는 소설의 14장에서 이런 부분이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그가 미국에서 겪었던 괴상한 거부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의 허풍스러운 자세와 말투 및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성공한 인물에 대한 부러움, 그리고 스스로도 고향으로 돌아와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학문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업도 함께 일구는 실천으로 그의 상반된 심정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지식인으로서의 명예를 끝까지 지키면서 마지막에는 장기 시험의 결과에 승복한 뒤 호탕하게 자리를 떴다.

지식인들의 눈에 비친 화인 디아스포라 지식인들의 모습은 이처럼 양립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복합적인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상태로 묘사되고 있다. 화인 지식인들이 여타 지식인들의 앞에서 자신들의 흔들리는, 혹은 가변적인 정체성을 가장하고 행동할 때에도 그런 모습들이 같은 부류인 지식인들에게는 그대로 드러나거나 더욱 왜곡되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화인 지식인들의 이와 같은 정체성의 불안정한 상태는 문화 간 혼종을 경험하고서 그들이 자의식의 과잉 혹은 자의식의 부족이라는 양단을 오가며 스스로에게 학습된 일종의 정신적인 상태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인 상태는 그들이 접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면서 동시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월감이나 자조적인 냉소의 방법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聶華苓의 소설에서 미국 이주 후 주인공이 만나게 되는 다양한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은 속물이며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으로 묘사되고 있다.

타이완으로 돌아가는 거? 거긴 정말 견딜 수가 없어. 그럼 중국대륙? 그곳도 안 돼. 이곳에 눌러 앉는다면? 나 같은 게 여기 있어봤자 뭘 해? 오늘 학교 도서관 아르바이트 일에 오 분인가 늦었어. John Zhang 그 개자식이 위세를 떨면서 나에게 영어로 명령하듯 큰소리를 질러대잖아. 늦거나 조퇴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야. 중국인이 미국에 온 것은 뭐 급이나 얻어내려 온 게 아니란 말이야. 누구를 막론하고 고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자식한테 말해 줬지. 이봐, Zhang. 당신도 중국인 아냐? 우리말로 좀 말씀하시지. 그러자 그 자식이 나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치더군. “뭘 이런 놈이 다 있어. You are fired!” 내가 당당하게 도서관을 나오는데 Zhang은 몸을 돌리고는 새로 도착한 『아름다운 중국』 책을 역사학과 어느 교수에게 보여주면서 이러더군. “It’s a wonderful country, isn’t it?”<sup>16)</sup>

지식인의 한 형상으로 소설에서 묘사된 도서관 사서 John Zhang을 바라보는 또 다른 지식인인 小鄧의 시선은 미국인에게 아침하고 미국을 지상 최대의 낙원인양 묘사하는 그 모습에서 신물을 느끼는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투영해 냉소적이고도 경멸을 담아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小鄧 역시 지식인 화인 디아스포라로서 자신 스스로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桃紅과의 관계를 통해 스스로의 신분적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다시 於梨華의 소설에서 지식인 화인 디아스포라인 주인공이 느끼는 내재적 갈등 부분을 살펴보자.

출국 후에 그와 같이 졸업했지만 외국으로 나가지 않았던 동기들과 간혹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들은 당연히 생활적인 부담을 무겁게 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 동기들의 번뇌는 어쩌면 정확히 그와는 반대되는 것이어서 외국으로 나가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이고 그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종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 생기는 후회보다는 더욱 심각한 것이어서, 그건 어떤 목표를 이룬 뒤에야 완전히 그것이 아님을 알고서 느끼게 되는 환멸 섞인 번뇌였다. 모르긴 몰라도 그 동기들은 속으로 그의 금의환향과 박사 학위, 성공을 부러워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가 모든 청춘의 활력과 맞바꿔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누가 알 수 있을까? 게다가 활력과 꿈을 대가로 지불하고 떠나서 지금처럼 즐거움은 주지 못하는 안정과 영화로움으로 바뀌어 왔던 그가 느끼게 되는 것은 단지 허무함뿐이라는 것을 또 누가 알겠는가? 하물며 10년 동안 외국에서 겪어 온 피할 수 없었던 인종차별, 고생, 그리고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받은 갖은

16) 回臺灣吧, 受不了! 回大陸吧, 也受不了! 留下來嗎? 我在這兒又算個什麼? 今天我到學校圖書館去打工, 遲到了五分鐘。約翰·張那王八蛋用英文和我打官腔, 大聲命令我不能遲到, 不能早退, 中國人到美國來不是淘金的, 無論什麼人都得苦幹的。我對他說:『姓張的, 你是中國人嗎? 請用國語發音!』他指著我大叫:“你是什麼東西? You are fired!”我堂堂正正走出圖書館, 只見他轉身把一本新到的《錦繡中華》書冊拿給歷史系一個美國教授看: “It’s a wonderful country, isn’t it?” 聶華苓, 《桑青與桃紅》, (臺北: 時報文化出版, 1997), 219쪽.

인생과 학업의 끝도 없는 좌절, 안개보다 아득하고 흐릿한, 바다보다 아득히 넓고 얼음보다 시린 외로움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공허함은 그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sup>17)</sup>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들 그가 ‘금의환향’한 것으로 존경과 부러움을 표현하더라도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남들이 자신을 통해 투영시켜 보고자 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자신이 보이고자 하는 모습과 남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모습, 그리고 실제 자신의 모습과 남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 외면하고 싶어 할 정도의 솔직한 현실의 사이에 존재하는 틈으로부터 갈등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고정불변의 것으로 더 이상 여겨질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가변적인 정체성<sup>18)</sup>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지식인 디아스포라의 양가적

17) 出去後，和他同期畢業沒有出國的同學，他偶爾還有連絡，他們唐碩負着重重的生活担子，可是他們也過着平順的生活呀！他們的煩惱也許正是和他相反，爲了沒有出成國而煩惱，而他的，則實在比這種沒有達到目的的煩惱深的多，那是一種達到目的之後，發現完全不是那麼回事的幻滅的煩惱。也許那些同學們在心里羨慕他的衣錦榮歸，他的博士及他的成就。可是誰能猜測到這些是支付了他全部的青春活力去換來，而活力與夢想制服出去之後，雖然換來了這些只能給與安全而不能給與快諾的榮耀，而他所感覺到的只是一個空字呢？何況，十年來在國外所受到的不能避免的種族歧視，自己的辛苦，以及讀文科所受的種種生活與學業的挫折以及無窮無盡，比霧還迷濛，比海還浩瀚，比冰還要寒心的寂寞！這份空洞他是沒有辦法向人解釋的，沒有人能懂的。於梨華，《又見棕櫚又見棕櫚》，(南京：江蘇文藝出版社，2010)，46-47쪽.

18) “화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에 관한 것은 그들이 이주를 통해 축적한 문화적 경험들로 구성된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계기들을 통해서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혼종화된 방식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나가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고정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거나 변화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체성의 의미의 변화 요구에서 파생되어 새로운 정체성의 출현을 의미하게 되었다.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국가나 영토라는 틀로 규정되었던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약화되고 종족, 인종, 지역공동체, 동일 언어 사용자들의 공동체 혹은 기타 문화적인 형식에 기초한 새로운 정체성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 화인 디아스포라들의 질긴 삶의 추구 의지 속에 구축된 저들의 정체성은 저만치다가서 있지만 직접 손이 닿지 않는, 그러나 거칠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으로 이미 파악된 ‘가변적 정체성’인 것이다.” 고혜림,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문학적 특징》,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13), 18쪽.

† 이 개념은 김혜준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김혜준, <화인화문문학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Vol.50,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1), p. 105.

시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이들은 스스로에게 우월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자조적인 냉소를 가지고 있다. 다른 화인들이나 고향 사람들에게 이러한 우월감을 드러내는 방식은 소극적이거나 적극적이거나 정도의 차이를 보일 뿐 어느 정도는 허세의 모습으로 혹은 다소 겸손한 모습을 가장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둘째, 이들은 혼종적이고 뒤섞인 감정 상태를 이중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화인 디아스포라들의 감정 상태는 기본적으로 혼종화 과정을 겪고 있거나 여러 갈래의 뒤섞인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보다 뚜렷하게 복잡한 심리와 소외된 상태로서의 갈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들의 정체성은 가변적이거나 혹은 끝없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천부적이거나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여러 다양한 조건들로부터 정체성은 규정되는 것이지만, 화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규정되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보다 역동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소위 뿌리를 흔들어놓는 이주와 이중적인 소외의 경험들은 몇 마디 말로 정의될 수 없다. 이는 또 분명하게 어떤 하나의 국가나 민족이나 특성으로 규정될 수 없는 정체성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정체성의 변화 과정 혹은 변화의 요인들을 마주하는 과정과 가변적이거나 정의내리기 힘든 정체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기실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식민의 형태는 이미 디아스포라들의 모습 속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내재된 식민의 형태가 곧 포스트식민적 디아스포라의 한 측면으로 관찰되는 것이다.

### 3. 비지식인의 지식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양가적 시선과 성격

白先勇, 張系國, 於梨華, 聶華苓 등의 북미 지역의 제 3기 화인화문문학에서 나타나는 지식인들의 모습과 특징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특징적인 몇 가지

성격으로 종합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을 바라보는 비지식인들의 양상 역시 동일한 하나의 시각이 아니라 복합적이고도 양가적인 시선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여기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식인이 지식인 화인 디아스포라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들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으로 대비되어 소설에서 나타나는 비지식인들의 대화와 사고방식에서 추가적으로 화인 디아스포라들의 모습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앞서 지식인으로 통칭했던 이들의 스스로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은 그들을 제외한 여타 사람들, 즉 비지식인들의 눈에도 그들만의 방식으로 보이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러한 시선 속에서 양가적인 성격 역시 일정한 방향성 혹은 특징들을 가지고 발현되고 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한다.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비지식인 디아스포라의 지식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는 먼저 於梨華의 소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녀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력거꾼은 충분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시장의 상인들 중의 한 명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이를 반드시 비지식인이라고 분류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於梨華 자신이 스스로를 지식인으로 그리고 그녀의 소설 속 여타 직업군의 사람들을 지식인에 대비되는 직업들로 묘사하고 있는 기존 독서계의 일반론을 근거로 하더라도 天磊에 대비시켜 비지식인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 역시 가능하리라고 본다. 인력거꾼들은 길거리에 침을 뱉거나 함부로 말을 던지는 등 주인공이 그들을 보는 시선에도 일정 부분 지식인들을 대할 때와는 다른 예의 없음, 무례함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이제 막 십년 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天磊를 보며 인력거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다른 인력거꾼이 말했다. “서양에 유학하던 사람들 보니까 많이들 돌아와서 가족을 만나러 오더라고. 내 인력거 빌려 댄던 그 우(巫) 부인 큰아들도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한테 눈깔만큼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사 줬다지. 참! 우 부인 말로는 아들이 미국에서 1년 동안 번 돈을 타이완에 와서 쓸라치면 평생을 먹고살 수 있다더라고요! 허허허! 우리 아들은 내 이 두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길

을 찾아서 미국에 가서 큰돈을 벌어 오도록 할 생각입니다요.”<sup>19)</sup>

인력거꾼의 직업적 특성상 그가 접하게 되는 다양한 고객들 중에서도 특히 미국을 유학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지식인 화인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비지식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인력거꾼의 말처럼 미국 유학이라는 것이 ‘눈깔만큼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고향집으로 가져다줄 수 있을 만큼 부를 보장하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시 타이완의 수많은 비지식인들의 공통된 인식과도 같았다. 그리고 부모의 공통된 바람인 자식의 성공을 꿈꾸는 것 역시 미국으로의 유학, 곧 자발적 디아스포라 신분으로의 전환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白先勇의 단편 중에서도 대표작으로 꼽히는 <永遠的尹雪艷>에서의 尹雪艷은 중국대륙에서 타이완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사실상 그녀는 지식인으로 분류될 수는 없지만 이주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한 화인의 한 사람으로 은유되고 있다. 장소가 타이완이라는 것을 제외하면 이주 후에도 계속해서 고향의 모습을 거주국에서 재현하고 소위 ‘나만의 작은 고향’을 다시금 만들어내는 면에서 미국의 차이나타운과 같은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녀를 대하는 다른 화인들의 시선은 다소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이 尹雪艷이었다. 兆豐 나이트클럽의 댄스홀에서나 蘭心 극장의 복도, 霞飛路 일대 고관대작들의 응접실에 하얀 옷차림으로 발을 피고 소파에 비스듬히 앉은 윤설염이 그녀의 입가에 살포시 미소를 띠고 있을 때, 자리에 모인 이사나 상무들, 그리고 직물 공장의 영감이나 간부들, 심지어 그들의 부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녀 앞에 몰려 혀를 차고 말았다. 그러나 洪 처장의 팔자도 허약했다. 끝내 尹雪艷의 살을 억누를 수는 없었다. 첫째에 벼슬을 뺏기고 이듬해에 파산당하고 臺北으로 철수해선 한직 한 자리도 주울 수 없었다.<sup>20)</sup>

19) 另一個車夫說：“好多留洋的人都回來探親來了，包我車子那家巫太太，她大兒子也剛回來，給她帶來一個鉆戒有眼珠子那麼大，啊！巫太太說她兒子在美國一年賺的錢到臺灣來用，可以過一輩子呢！嘖嘖嘖！我的兒子，哪怕我把這雙眼踏斷，也要想法把他送到美國去賺大錢。”於梨華，《又見棕櫚又見棕櫚》，（南京：江蘇文藝出版社，2010，46쪽）

20) 這就是尹雪艷：在兆豐夜總會舞廳裡，在蘭心劇院的過道上，以及在霞飛路上一棟棟候門官府的客堂中，一身銀白，歪靠在沙發椅子上，嘴角一徑挂着那流吟吟淺笑，把場合中許多銀行

白先勇의 소설에서 묘사되는 많은 인물들의 모습은 화인 디아스포라의 또다른 은유의 형식으로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소외되고 갈등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비록 <永遠的尹雪艷>와 같이 작가의 목소리로 가장한 비지식인 디아스포라들의 尹雪艷에 대한 평가는 질투를 넘어서 원망과 불운의 원인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말이다. 고국에서 벗어나 이동하는 디아스포라들에게 고국 분투하는 자신들의 삶을 더욱 현실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알 수 없는 성공한 집단 혹은 사람들을 호기롭게 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일 것이다. 《臺北人》의 경우 이런 점 외에도 끝없는 과거의 반추와 기억의 회상이 접철된 이주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다루고 있다. 위 작품 외에도 특히 그 기억들 속의 화인의 모습 중 지식인을 바라보는 비지식인의 행위가 주목할 만한데 그것은 白先勇의 소설 중에서도 영화화되기도 했던 단편 소설 <花橋榮記>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장기 식객 중에 盧 선생 한 사람만이 우리 桂林의 동향이었다. 보면 묻지 않고도 알 수 있었다. 예의를 알고 셈도 하는 모범적인 지식인으로 장춘소학교에서 여러 해 국어 교사를 해왔다.(…중략…) 그러니 내가 盧 선생 편을 든다고 할 수 있겠는가? 누구라도 예전에 좋은 집에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다 마찬가지로 다 망한 것이다. 하지만 盧 선생 같은 사람은 교양이 있어서 안분(安分)하면서 허튼 소리를 잘 하지 않았다. (…중략…) 지금처럼 생명이나 부지하는 것이 이치였고 아쉬운 대로 참고 살지 않으려 해도 닥치고 있거나 해야 했다. 남이야 뭐라 하든 상관없이 나는 盧 선생의 밥상엔 신경을 썼다.<sup>21)</sup>

<花橋榮記>의 일부분에서 나타나는 지식인에 대한 묘사의 일부분에서 盧

界的經理、協理、紗廠的老板及小開，以及一些新貴和他們的夫人們都拘到跟前來。可是洪處長的八字到底軟了些，沒能抵得住尹雪艷的重煞。一年丟官、兩年破產，到了臺北來連個間職也沒撈上。白先勇，《臺北人》，(臺北：作家，2000，3쪽)

- 21) 包飯的客人裡頭，只有盧先生一個人是我們桂林小同鄉，你一看不必問，就知道了。人家知禮識數，是個很規矩的讀書人，在長春國校已經當了多年的國文先生了。(……)所以說，能怨我偏向人家盧先生嗎？人家從前還不是好家好屋的，一樣也落了難。人家可是有涵養，安安分分，一句閒話也沒得。(……)我就不由得光火，這個年頭，保得性命就是造化，不長將就就的，還要習嘴呢！我也不管他們眼紅，盧先生的菜里，我總要加些料。白先勇，《臺北人》，(臺北：作家，2000，104-105쪽)

선생으로 불리는 인물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주 이전 누리던 부귀와 명예는 기회와 안정을 찾아 떠난 이후 환경과 신분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소설의 여자주인공은 이주 후 식당을 꾸리며 지식인 세계와는 거리가 먼 비지식인의 한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지난 과거에 대해 억척스러운 자세로 삶을 개척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盧 선생의 경우는 지금의 방식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 주인공은 그런 그의 모습을 안쓰럽게 생각하며 더욱 신경 써서 밥상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중국대륙 출신의 다른 이들과 달리 자신들의 신분적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엄한 곳에서 화풀이를 해대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보면 盧 선생 같은 사람을 만나는 쉽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안분하며 산다는 것은 주인공만의 짐작이었을 뿐 사실상 盧 선생은 내적으로 바뀐 환경과 신분의 변화 및 과거 교류하던 사람들과의 관계 변화로부터 심각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묘사된다. 결국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내몬 이유들인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그가 가장한 외적인 모습과 죽기 직전까지 보여준 지식인이라 볼 수 없으리만치 광기어린 행동들은 그러한 갈등이 줄곧 존재해왔음을 반증한다. 於梨華의 소설에서 天磊를 바라보는 식당 가게 주인과 다른 손님들의 모습을 역시 살펴보자.

“도련님 부친께서 종종 들러서 우리 이 노점들을 돌봐 주곤 하셨죠! 도련님 오시기 전만 해도 어르신은 도련님이 미국에서 몇 해나 계셨고 몇 년 동안 공부를 했으며 미국 돈을 몇 푼이나 벌었는지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곤 하는데 입을 못 다물 정도로 웃으셨답니다! 어르신 말씀으로는 도련님이 미국 대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중국인이 미국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셨다니!” 노점주인의 말에 天磊는 매우 난처해져서 얼굴이 붉어졌고 몇몇 인력거꾼들은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서 또 그를 쳐다보는데 모두 존경의 표정이었다.<sup>22)</sup>

22) “您的老太爺常來照顧我們這個小攤呢! 您還沒回來, 您老太爺就跟我們說哪, 您在美國多少年, 讀了多少書, 賺了多少美金, 您老太爺笑得合不攏口呢! 他說您在美國教大學堂, 那多不容易呀! 中國人做美國人的老師!” 天磊被他說得十分窘迫, 紅着臉, 幾個車夫見老板這樣說, 朝他望, 滿臉的欽慕。於梨華, 《又見棕櫚又見棕櫚》, (南京: 江蘇文藝出版社, 2010, 45쪽)

지식인 화인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비지식인들의 모습은 위와 같이 우선적으로 '존경의 표정'이나 행동들을 통해 잘 표현되고 있다. 지식인으로서 화인 디아스포라 신분을 살아내는 사람을 대하면서도 특히 그들이 생각하는 선진국 이자 당시로서는 아직까지 'American dream'이 여전히 유효한 시대였기에 이러한 표현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지식인들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면서 이루지 못하는 욕망을 실현한 실제적인 존재로서 일차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기원지 혹은 출발지로 말할 수 있는 디아스포라들의 고향이라는 장소가 국제 정치학과 힘의 역학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더 선진국이라고 느끼는 곳은 경험한 사람을 대할 때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비지식인들이 느끼게 되는 소위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은 그들이 스스로 내재하고 있는 잠재된 주변화, 혹은 타자화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내재된 어떠한 의식으로부터의 자연스러운 발화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인 화인 디아스포라들이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은 자신들이 감추고자 하는 치부가 그들에게 노출되게 될 때 비지식인 디아스포라들이나 기타 고향의 화인들이 그들에게 보일 수도 있는 철저한 냉소와 비판을 견뎌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고한 불신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노점에서 음식을 사먹는 동네 사람들이 미국 유학을 경험하고 타이완에 잠시 들른 天磊를 대하는 장면은 또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렇게 늦은 밤에도 일들을 하시나 봐요?”

한 인력거꾼이 손등으로 씩 입을 닦고서 바닥에 침을 탁 뱉었다가 天磊가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발로 흙을 눌렀다.<sup>23)</sup>

위풍당당한 마을 유지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도 마을 사람들은 天磊가 미국 유학을 하고 와서 성공이 보장된 탄탄대로를 걸을 인재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23) “諸位辛苦了吧! 這樣晚還在做生意?” 有一個車夫用手背一抹嘴, 吐了口唾沫在地上, 看見天磊不由自主地皺眉, 忙用腳將它揉入沙塵裡。於梨華, 《又見棕櫚又見棕櫚》, (南京: 江蘇文藝出版社, 2010, 46쪽)

天磊의 표정 하나하나를 신경 쓰고 있으며 오히려 소탈하게 배려하는 天磊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비지식인들이 지식인 화인 디아스포라를 대하면서 느끼게 되는 열등감과 부러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도 표출된다.

魏 주방장이 허허 웃으며 말했다. “牟 선생님, 선생님은 미국에서 이제 막 돌아 오셨으니 무슨 좋은 방법이 있으시겠죠.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평생 몇 나라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더더욱 외국으로 가서 여기저기 다니며 시야를 넓히고 싶습니다. 도와주셔서 그쪽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음식점을 열어서 선생님께 이익을 절반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天磊는 하는 수 없이 웃으면서 말했다. “제 여동생도 미국으로 놀러 가고 싶어 하는데도 저는 별 방법이 없는 걸요!” 하지만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과 魏 주방장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보자 그는 이어서 말했다. “臺北로 돌아가면 영사관 쪽에 물어봐 주고 다시 대답을 주도록 하죠. 어떡세요?”

魏 주방장은 손을 비비면서 그에게 감사하다고 했고 다시 들어갔다.<sup>24)</sup>

사실상 주인공도 그가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내내 이방인 아닌 이방인의 삶을 경험했기에 고향에서 사람들이 하는 부탁과 요청에 대해서도 냉정하지 못하다. 그는 감추고서 거만하게 행동할 수도 또 드러내놓고 절절한 이방인으로서의 경험을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저 영양가 없는 대화들을 주고받는 그 모습들은 지식인 화인 디아스포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며 이는 소설에서 비지식인의 눈과 입을 통해 묘사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지식인에게 있어서 지식인 화인 디아스포라들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스스로 열등감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을 종종 만들도록 하고 있었다. 지식인을 대하게 될 때 비지식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열등의식을 바탕으로 지식인 화인들을 자연스럽게 중심화 시켰고 그들 스스로

24) 老魏呵呵的笑着：“牟先生，你先生剛從美國回來，可有甚麼好法子，說給我們聽聽，我這一輩子也沒有跑過幾個碼頭，倒真想出去跑跑開開眼界，如果你有甚麼法子幫我去了那邊，我開開館子，你先生淨拿對利。怎麼樣？”天磊勉強笑着說：“我自己妹妹想去美國玩玩，我都沒有辦法呢！”但看見全席的人和老魏都在望他，他接下去說：“等我回臺北，替你到領事館去問問，再給你回音，好嗎？”老魏搓搓手，謝了他，退下去。於梨華，〈又見棕櫚又見棕櫚〉，（南京：江蘇文藝出版社，2010，184쪽）

를 주변화 시켰다. 주변화의 주된 요인은 선진국에 대한 부러움과 열망 등으로 부터 기인했으며 결국은 그들은 오리엔탈리즘적인 방식을 내재화<sup>25)</sup>하면서 스스로를 더욱 낮은 존재, 주변화 된 존재로 전락시키고 있었다.

비지식인의 입장에서 지식인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양가적 시선은 위에서 살펴본 바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으로 귀결된다. 화인을 바라보는 오리엔탈리즘적 요소들로 크게 구분지어 우선 지식인들이 스스로 내재한 것과 마찬가지로 혼종성을 띠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혼종성은 주로 문화적 혼종성을 일컫는 것으로 어떤 문화라 하더라도 다른 문화들과의 영향권 바깥에 존재하면서 순수함을 간직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미 바바는 문화 간의 상호작용이 혼종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 문화들 간의 경계선 혹은 중간 지대라고 여기는 지점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같은 범주에서 출발한다.

두 번째로 이들은 사대주의적 의식이 그들 인식의 저변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나은 곳으로 이주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부를 담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해줄 수 있다는 믿음은 경험적이거나 현실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상되고 허상으로 밝혀질 수도 있는 실체 없는 그 무엇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지식인들을 통해 발견되는 지식인들의 모습은 결국은 미국을 경험한 이들에 대한 부러움을 기본으로 하면서 질투어린 시선을 담고 있게 된다.

세 번째로 이들 역시 내적 오리엔탈리즘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25) 에드워드 사이드의 주장에서 동양을 논의하는 방식으로부터 '오리엔탈리즘'과 관련한 담론들이 발전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이는 곧 우월한 서구적 자아와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비서구 타자의 연관관계이자 그것을 설정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로 귀결되고 있었다. 하지만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드러나는 실체는 동양이라기보다는 서양이며 기저에 깔려있던 전체는 식민지배와 확장이라는 서구의 야욕이었다. 이를 위해 작동한 기제인 오리엔탈리즘은 결국 피식민주체들의 식민적의식의 내재화를 유발했지만 식민지배 권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호미 바바로 넘어오면서 피식민주체에 내재하는 양가적인 성격에서 기인한 피식민주체들의 행위주체로서의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 지배자를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에 위치하도록 만드는 불안감은 그 틈으로부터 다시 나오게 된다.

이드의 말처럼 그들 자신의 내부에 이미 자신의 것과 같이 내재화된 오리엔탈리즘적인 요소들로 인해 그들은 스스로를 덜 행복하고 덜 안정적이며 언제나 더 나은 것을 갈구해야만 하는 오리엔탈리즘적 존재들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내적 혹은 내재화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동양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 4. 디아스포라의 신분적 층위와 갈등

앞서 화인화문문학에서 나타나는 화인 디아스포라들의 모습을 지식인 유형을 중심으로 지식인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양가적인 시선과 그 특징, 그리고 비지식인의 입장에서 지식인을 바라보는 양가적인 시선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화인화문문학을 이해하도록 하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 같은 국가로부터의 이주자들을 보더라도 부의 정도에 따라 거주국에서의 위치성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본고에서는 이주자인 화인 디아스포라들의 사회경제적 위치, 특히 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가짐에 따라 타자화와 주변화가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여기서는 신분적 층위에 따른 요인들이 갈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식인을 중심으로 바라보았으며 혹여 다른 각도에서 이들의 작품 혹은 또 다른 시기의 화인화문문학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 역시 귀납적으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식인이라는 키워드가 제공할 수 있는 직접적인 면모에서부터 보다 다양한 면모들을 엿볼 수 있는 계기 역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앞서 화인화문문학에서 표현된 화인 디아스포라들의 모습은 특히 지식인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양가적 시선이라는 측면에서 (1) 우월감과 동시에 자조

적인 냉소 (2) 혼종적이고 뒤섞인 감정상태의 이중적 표출<sup>26)</sup> (3) 가변적, 혹은 흔들리는 정체성이라는 특징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바라보는 비지식인 디아스포라들의 시선은 (1) 사대주의적 혹은 주변화된 의식의 잠재 (2) 직업적 사회적 역할로부터 기인한 열등의식 (3) 내재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실상 문학을 통해 표현된 지식인 화인 디아스포라에 대해 이와 같은 특징들을 도출해내는 것은 신분적 층위에 따라 양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설이 삶을 비추고 담아내는 그릇 혹은 거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양상들은 특정 시기의 화인들의 문학작품에만 한정된 경우는 아닐 수도 있다.

포스트식민 담론 내에서 지금껏 살펴 본 화인 디아스포라의 모습을 지식인이라는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한정지었을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학비평의 역할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첫째는 디아스포라 연구에 있어서의 문학적 접근에 있어서의 장점의 한 가지로, 사회학적인 측면의 통계와 경계 짓기 혹은 구분을 벗어나 그 속의 인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흐름과 인간성 탐구라는 근원적 화두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휴머니즘적 접근과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는 예방적 사전적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 유효하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디아스포라의 신분적 층위와 갈등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고 미래적 개념으로의 전망을 가능하게 해준다. 디아스포라 연구는 사회학, 문화학, 문학을 통틀어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지금의 시대의 이슈이자 화두이다. 그리고 이는 현재적 의미에서 북미 지역의 캐나다와 미국처럼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최

26) 디아스포라 혹은 문화회단적 행위자들을 가리켜 혼종적 정체성을 가졌다고 설명하는 글도 적지 않다. 신지연, 이영민의 <글로벌 이주 시대의 재외 한인타운의 재구성 and 민족간 관계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26권1호, 서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4, 50-66쪽)의 경우 '혼성적 정체성'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영문 'hybrid identity'는 원어상 동일한 개념이다. 이가야의 <카리브해 지역의 혼종적 정체성> (《프랑스문화예술연구》 제48집 여름호, 서울: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14, 241-272쪽)에서는 문화적 정체성으로부터 기인한 혼종적 정체성을 다루고 있다.

근의 북미 지역은 다문화의 개념을 넘어서 모자이크 사회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분명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해결적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고 있다. 나아가 같은 민족이지만 오랜 시간적 간극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한국이 향후 통일된 한국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체성은 고정된 무엇이 더 이상 아님을 인정하여야 한다. 사실 상 그 누구도 원칙적으로는 온전하고 완전한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며 그러므로 정체성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는 것과<sup>27)</sup> 이에 가변적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화인 디아스포라들의 지식인 형상들과 그들의 양가적인 사고 형태를 살펴보고, 나아가 비지식인들이 지식인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상반된 사고 형태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식인 스스로가 느끼는 정체성 문제나 비지식인이 지식인에게 갖게 되는 양가적인 정의내림과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유사하면서도 또 다른 형태로 화인화문문학 안에서도 묘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학계에서 이주에 관해서 이루어진 연구 방식은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 이주를 감행하는 방법, 그리고 이주가 거주국에 미치는 영향, 고향을 포함한 출발지에 미치는 영향, 이 사람들이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적응 혹은 동화되는 방식과 같이 소위 고향과 거주국 두 곳에서 각각 벌어지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고향과 거주국 사이의 지속적인 연결성 탐구와 이러한 연결성에 기초하여 두 곳의 공간이 어떻게 상호 재구성되는가에 대해 주목한다.<sup>28)</sup>

27) 데이비드 허다트 지음, 조만성 역,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서울: 엘피, 2011), p. 32 참고.

28) "특히 트랜스국가적인 이주를 통해 형성되어 정치적, 경제적 조직을 재생산해 나가는 '트랜스이주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트랜스이주의 결과물이자 또한 과정으로서 중요한 연구대상이자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더 연구될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이영민, <글로벌 시대의 트랜스이주와 장소의 재구성: 문화지리적 연구 관점과 방법의 재정립>, 《문화역사지리》 Vol.25, No.1, (서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3), 56쪽 참고.

여기서 양가적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상반된 사고 형태나 그 사이의 간극 및 갈등은 포스트식민적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존재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속에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이 함께 섞여 있어 중층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인 디아스포라들이 겪게 되는 필연적인 정체성의 문제 역시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에 개입하고 있어 상호관계 속에서 결과적인 현상으로 도출된다.

여기서는 모든 화인들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루기 이전에 지식인 화인 디아스포라를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세부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했다. 지식인 화인 디아스포라가 자신을 바라보는 양가적인 시선과 성격에서부터 기타 비지식인 화인들이 지식인을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작중 지식인 출신이거나 지식인으로 묘사된 화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화 교류의 치열한 현장에서부터 실존의 문제로까지 해석학적이고 인식론적인 지평을 넓혀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상기한 것과 같이 지식인 디아스포라들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이중적 잣대와 그들이 다른 사람의 인식에 다가가는 이중적 잣대를 특징적인 측면에서 조망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모습에서 도출되는 몇 가지 분석이 어떤 측면에서는 디아스포라 일반론과 중첩되는 부분들도 나타났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기에 발생한 디아스포라의 특징들이 특수성으로 남아있지 않고 보다 더 큰 보편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세계 모든 특수한 사례들이 어떤 이데올로기 혹은 어떤 정치적 집단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특징을 보이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다. 이는 나아가 보다 전지구적 문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혹은 현재적 시점에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담론인 세계문화적인 어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발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 5. 결론

본고에서는 화인 디아스포라라는 특수한 집단에서 발견되는 양가적이고 혼종적인 특성을 화인들의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인간성의 탐구와 인간성에 대한 성찰이라는 문제에 가장 근접하는 하나의 키워드로서 지식인의 양가적 입장과 성찰을 진단하는 것으로부터 접근했다. 화인화문문학은 1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나오면서 사실상 현재적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인화문문학은 중국대륙중심주의를 전복하고 해체하고자 하는 과격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오히려 본고에서 계속해서 주목한 점은 이들의 글에서 발견되는 요소들이 특수한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특수성이 전지구적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한 사례가 될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張系國, 於梨華의 소설에서는 지식인에 대한 묘사가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식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느끼게 되는 상반된 정체성 문제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白先勇의 소설에서도 일부 지식인에 대한 묘사 및 비지식인들이 지식인을 대하거나 바라보는 사과의 형태들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聶華苓의 경우 소설의 후반부인 거주국에서의 인물의 경험에서 이런 점들이 일정 부분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인의 사고형태의 양가적인 시선과 성격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변화시켜나아가는가 하는 문제들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화인 디아스포라 지식인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통해서 소설을 살펴봄으로써 한 단계 더 화인화문문학의 이해에 대한 길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곧 화인화문문학의 문학적 함의의 풍부성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다.

화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특정 시대와 특정 지역에 대한 고찰은 앞으로 더 수많은 변증법적 사례들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방법론적인 차원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한다. 다양한 시대와 보다 다양한 작가와 작품들에 접근하기 위한 단계적인 차원의 작업의 일환으로 현상을 진단하고 고찰하여 이로부터 디아스포라 일반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접점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의 디아스포라 연구에 대한 유의미성을 찾는 방향에 대한 향후 연구에 대한 전망으로 연결되어 오는 과정 역시 문화학적 차원에서 흥미로운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사회, 디아스포라, 문화의 혼종, 중심과 주변의 경계 허물어짐과 같은 현상들은 이제 전세계적으로 시간적 차이가 거의 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수많은 현상들 중에서도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편적인 현상이자 특징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북미 지역의 화인들에 의한 화문문학이 주된 문제의식으로 접근하는 하나의 실례가 된다는 전제로 접근했다. 향후 보다 더 특수한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결론으로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발전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안고 있는 고민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문화사회와 디아스포라에 대한 긍정적이고 잠재적인 발전요소를 이해하게 된다면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강조되어온 민족주의의 신화를 넘어설 수도 있는 새로운 지향점 제시 혹은 방향성 설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한국은 주변 민족과 국가들과 끊임없이 교류 혹은 마찰, 그리고 이후 무역과 교역이 활발해지고 나서 줄곧 다른 민족과 국가 출신의 사람들의 정착과 이주 역시 경험했다. 순혈주의와 민족주의가 근대 이후 한국인들에게 주입되어온 신화, 혹은 베네딕트 앤더슨이 말했던 '상상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기 전까지 우리는 다문화와 다민족을 우리 사회의 뿌리를 흔드는 불안요소와 다름 아닌 것으로 간주하게 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다문화와 다민족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중립적인 시각의 접근은 이러한 사회불안요소로 치부될 문제를 좀 더 우리 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발전적 요소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문학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학적 접근을 통해서도 필요한 해석학적 방법론과 인식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는 단초들을 찾아내도록 할 것이다.

#### < 參考文獻 >

- 白先勇, 《臺北人》, (臺北: 作家, 2000).
- 聶華苓, 《桑青與桃紅》, (臺北: 時報文化出版, 1997).
- 張系國, 《棋王》, (臺北: 洪範, 1978).
- 於梨華, 《又見棕櫚又見棕櫚》, (南京: 江蘇文藝出版社, 2010).
- 고혜림,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역사와 시기구분>, 《중국학논총》, (서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2.11), 323-339쪽.
- 고혜림, 《북미 화인화문문학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문학적 특징》,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13).
- 김용규, <포스트 민족 시대 혼종과 틈새의 정치학: 호미 바바 읽기>, 《비평과 이론》 Vol.10 No.1, (서울: 한국비평이론학회, 2005), 29-57쪽.
- 김용규, 《혼종문화론》, (서울: 소명출판, 2013).
- 김혜준, <화인화문문학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Vol.50,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1), 77-116쪽.
- 데이비드 허다트 지음, 조만성 역, 《호미 바바의 탈식민적 정체성》, (서울: 엘피, 2011).
- 레이 초우, 장수현·김우영 옮김,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현대 문화연구에 있어서 개입의 전술》, (서울: 이산, 2005).
- 마이클 새머스, 이영민, 박경환, 이용균, 이현욱, 이종희 역, 《이주》, (서울: 푸른길, 2013).
- 서은주, <지식인 담론의 지형과 '비판적' 지성의 가치>, 《민족문학사연구》 54권, (서

- 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4), 503-533쪽.
- 王景山編,《臺港澳暨海外華文作家辭典》, (北京:人民文學出版社, 2003).
- 李瑞騰,《聶華苓》, (臺灣: 國立臺灣文學館, 2012).
- 孫超, <邊遠의舞蹈“留學生文學”與“新移民文學”華人女作家比較研究>, 《世界華文文學研究》第四輯, (合肥: 安徽大學出版社, 2007.12), 29-39쪽.
- 顏敏, <大陸·台港澳暨海外華文文學研究中的“空間·緯度”>, 《世界華文文學研究》第四輯, (合肥: 安徽大學出版社, 2007.12), 13-21쪽.
- 이보경, <대북 사람들 속의 상해인 디아스포라>, 《중국현대문학》 Vol.43, (서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7), 215-241쪽.
- 이영민, <글로벌 시대의 트랜스이주와 장소의 재구성: 문화지리적 연구 관점과 방법의 재정립>, 《문화역사지리》 Vol.25, No.1, (서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3, 47-62쪽.
- 이옥연, <중국인 디아스포라와 高行健의 문학>, 《中國語文學誌》 Vol.14, (서울: 중국어문학회, 2003), 383-402쪽.
- Arif Dirlik, *Chinese On The American Frontier*, Lanham: Rowman&Littlefield Publishers, 2003.
- Christiane Harzig and Dirk Hoerder with Donna Gabaccia, *What is Migration History?*, Cambridge: Plity Press, 2009.
- Homi K. 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4(초판), 2004.
- Kingston, Maxine Hong, *The Woman Warrior*, New York: Vintage International, 1989.
- Shu-mei Shih, *Visuality and Identity: Sinophone Articulations across the Pacific*,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 Abstract >

This is a study on what the Chinese Literature by Chinese Diaspora(CLCD) really stands for, unlike it is sometimes misunderstood as a radical ideology to overset and to deconstruct mainland Chinese literary environment. Should

there are inside in the CLCD's literary works definitely are not unique or special cases just found in their article but they are regarded as universal and rather general examples to proceed to the global general instances, thus, the concept of CLCD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m is to attract more and more researchers attention.

In this piece of work, some of representative novels written by Shih-kuo Chang and Li-hua Wu complied frequent description over intellectuals who are drifting both in their own homeland and in other countries about how deep the self-identity agony is and how complicated their status are. Also, in Hsien-yung Pai's novels I can recognize some of the portrait of intellectuals' anguish. At the same time, when they encounter some of non-intellectual people in the novel, the reactions and their way of realizations obviously stimulate reader's curiosity. At the last part of Hua-ling Nieh's novel, there is partially depicted how intellectual Chinese Diasporas live their lives. It is clearly discovered that the problems over how they accept their changed or yet-to-changed identities and to deal with them, these are the very closely related issues. Based on previous research outcome, I propose to go one step forward by analyzing aspects of intellectuals and gaze of non-intellectuals with characteristics of ambivalence and hibridity.

Key words: Chinese Diasporas, ambivalence, hibridity, post-colonialism, orientalism, intellectual, self-identit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5. 6. 31.	2015. 7. 20.	2015. 7. 23.	2015. 8. 10.	2015. 8. 31.